



대학에서의 교양 영어 교육에 대한 성인학습자의 요구 분석*

장지연 (명지대학교)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August 9, 2023
Revised: August 31, 2023
Accepted: October 1, 2023

Ji-Yeon Chang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Creative Convergence, College of
Future Convergence,
Myongji University
Tel: 02-300-0976
E-mail: jchang@mju.ac.kr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2022 LiFE project-Myongji University. Part of this paper was presented at the 2023 Join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T in Korea.

ABSTRACT

Chang, Ji-Yeon. 2023. An analysis of adult learners' needs for college English education.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3, 785-817.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adult learners pursuing higher education, there is a growing necessity to identify their needs for college English education. In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adult learners enrolled in a lifelong education college at a university in Seoul. The collected responses underwent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a larger number of respondents considered learning English to be essential. The primary reason is that English is now a requirement, and some respondents also needed it for everyday use, employment, or job changes. Speaking and listening were chosen as the most necessary areas for learning. Most of the respondents expressed agreement with the necessity of level-differentiated classes, and over half of them supported the administration of a diagnostic test. More adult learners showed a preference for Korean instructors and instruction in Korean in contrast to native English-speaking instructors and instruction in English. The courses the respondents requested mainly centered around fundamental or practical subjects, reflecting their English proficiency levels and characteristics as adult learners. Based on the discussion of the findings, this study offers suggestions to foster effective English learning for adult college students.

KEYWORDS

adult learners, college English for adult learners, needs analysis, lifelong education

1. 서론

대학에서의 성인학습자(adult learners)는 대학에 진학할 나이를 지나(예: 25세 이상) 대학에 진학한 학습자로서(김혜경, 윤희정, 진성희 2019, Kasworm 2003) 학령기 학습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닌다(Kasworm 2003, Knowles 1980, Knowles, Holton and Swanson 2005, Ross-Gordon 2003, Thoms 2001). 가령 대학 진학 시 성인학습자는 사회에서 이미 많은 경험을 쌓아왔으며, 가정이나 직장 혹은 기타 공동체에서 성인에게 요구되는 여러 역할을 수행한다(Kilgore 2003, Knowles 1980). 따라서 성인학습자는 비교적 자기주도적 성향과 책임감이 강하고, 목표 지향적이며, 스스로 필요성을 느낀 후에 학습 동기를 갖는 경향이 있다(Knowles 1980, Knowles, Holton and Swanson 2005, Thoms 2001). 반면 과거에 겪었던 부정적인 학교 경험으로 인해 학생으로서의 자존감은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다(Knowles 1980). 또한 성인학습자는 여러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학업에 할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Kasworm 2003, Kilgore 2003, Ross-Gordon 2003), 학습하는 내용이 현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를 희망한다(Knowles 1980, Thoms 2001). 이에 성인학습자 교육에서는 무엇보다 성인학습자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Kilgore 2003, Knowles 1980, Knowles et al. 2005, Ross-Gordon 2003, Thoms 2001).

미국의 경우, 고등교육에서 성인학습자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Kasworm 2003), 이는 사회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Knowles 1980). 가령 현대 사회는 인간의 평균 수명은 길어지지만, 기술의 수명은 점차 짧아지고 있다. 즉, 과거에는 유년 시절에 배운 지식과 기술로 평생을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습득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평생교육에 가담하는 인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지만 평균 수명의 증가로 직업전환이나 재취업을 위해 평생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교육부 2015, 2017, 2018, 2019, 2023). 더욱이 대학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기 인구가 대폭 감소하여 그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데(연지연 2019), 평생교육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기존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평생교육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을 통해 취미나 여가 위주로 운영되어 성인학습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질 관리 역시 부실하다고 판단했다(교육부 2015, 2017). 이에 정부는 성인학습자가 대학에서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고 졸업 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2016년에 9개 대학을 지원하는 300억원 규모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평단사업)”을 신설했다. 2017년에는 기존의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평중사업)”을 합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of Education)”으로 이름을 바꿔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지원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가령 2023년부터 시작되는 라이프 2주기 사업은 510억원의 예산으로 2년간 40개 대학(구축형 20개 대학, 고도화형 20개 대학)과 5개 컨소시엄을 지원할 예정이다(교육부 2023).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서는 “선취업 후진학”의 활성화를 목표로 대학에 성인학습자만을 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성인학습자의 성공적인 학업을 위해 성인학습자 친화적 교육과정과 수업 방식을 도입하기를 요구한다. 다만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성인학습자에게 양질의 대학 교육을 제공해야 하면서 동시에 성인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는 성인친화적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모순된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장지연 2020). 이에 대학에서는 최적화된 교육과정과 수업 방식을 찾기 위해 성인학습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절실한 상황이며, 성인학습자를 위한 교양 교육 역시 예외는 아니다(김혜경 외 2019). 특히 한국의 교양 교육에서 영어 교과목이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하면(조정순 2002),¹ 성인학습자를 위한 교양 영어 교육에 대한 연구 역시 몹시 필요해 보인다. 다만 대학에서의 교양 영어를 다룬 기존 연구들(권선희 2012, 김성혜, 임자연 2013, 김영숙, 이지연 2009, 박찬규 2013, 방영주 2014, 서정아 2018, 서혜진 2020, 성기완, 표경현, 이현명 2004, 송미정, 박용예 2004, 여경희 2012, 조정순 2002, 하명애 2010, 2013, 한진희 2020)이 학령기 학습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어 학령기 학습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닌 성인학습자에게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성인학습자의 영어 학습을 다룬 선행 연구들(김양홍 2021, 김영우, 김주혜 2016, 정현숙 2016) 역시 비형식교육기관인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준형식교육기관인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어 점차 증가 중인 형식교육기관에서의 성인학습자에게 기존 연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²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형식교육기관인 종합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의 교양 영어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고자 하며,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영어 학습에 대한 성인학습자의 요구는 무엇인가?
- (2) 교양 영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성인학습자의 요구는 무엇인가?
- (3) 교양 영어 교과목 운영에 대한 성인학습자의 요구는 무엇인가?

2. 선행 연구

2.1 대학에서의 학령기 학습자 대상 교양 영어 연구

대학에서의 교양 영어 교육과정을 다룬 선행 연구에서는 특정 대학(김영숙, 이지연 2009, 박찬규 2013, 방영주 2014, 서정아 2018, 서혜진 2020, 송미정, 박용예 2004, 하명애 2010) 혹은 여러 대학(권선희 2012, 김성혜, 임자연 2013, 성기완, 표경현, 이현명 2004, 조정순 2002)에서의 교양 영어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들 연구에서 다룬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수준별 분반 운영으로, 교양 영어를 담당하는 교수진(김영숙, 이지연 2009, 박찬규 2013, 조정순 2002)뿐만 아니라 교양 영어를 수강하는

¹ 조정순(2002)에 따르면 조사 대상 67개 대학 중 영어 교과목이 필수가 아닌 학교는 6개(9%)에 불과했던 반면, 영어 필수 교과목이 7학점 이상인 대학은 21개(41%)에 달했다. 나머지 34개(51%) 대학에서는 필수 영어 교과목을 6학점 이하로 지정했다.

² 평생교육기관은 형식교육, 준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한승희, 조대연, 최지희 2007). 가령 형식교육은 학교전용공간에서 전일제 수업을 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학교 교육을 지칭하는 반면, 준형식교육은 학교전용공간이 없거나 전일제 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 교육으로서 산업대학, 기술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교가 준형식교육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비형식교육은 교육전담기관이나 사설교육전담기관 혹은 공공교육복합기관 등에서의 교육을 지칭하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비형식교육으로 분류된다.

학생들(권선희 2012, 김영미 2010, 김영숙, 이지연 2009, 박찬규 2013, 방영주 2014, 서정아 2018, 서혜진 2020, 조정순 2002, 하명애 2010) 역시 대체로 수준별 분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가령 수준별 분반을 운영할 경우, 교수자는 해당 분반에 맞는 교재를 선정하고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는 지도와 평가를 할 수 있어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모여 있으므로 보다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가 조성되어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반면 분반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점, 진단평가(예: (모의) 토익 점수 혹은 수능 영어 성적)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점, 자체적인 진단평가 시험 시행이 행정적으로 번거롭다는 점, 수준별 분반의 학습 효과가 의외로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심리적으로 학생들에게 위화감이나 열등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수준별 분반의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몇몇 대학에서는 진단평가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수강 인원이 너무 많거나, 학생들의 영어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 수준별 분반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아예 운영하지 않기도 했다(김성혜, 임자연 2013).

다음으로 대학에서의 교양 영어를 다룬 연구에서는 원어민 교수와 한국인 교수의 차이에 주목했다(서정아 2018, 여경희 2012, 하명애 2010, 2013, 한진희 2020). 이들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교양 영어를 담당하는 원어민 교수가 증가하면서 학습자가 느끼는 선호도와 만족도를 비교했다. 가령 원어민 교수에 대한 선호도는 한국인 교수에 대한 선호도보다 높았으나(여경희 2012), 초급 수준의 학습자에게는 한국인 교수가 더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여경희 2012, 하명애 2010, 2013). 반면 수업 만족도의 경우, 원어민 교수와 한국인 교수의 차이는 없거나(서정아 2018, 한진희 2020), 한국인 교수가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하명애 2010).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인 교수는 수업 운영, 학생에 대한 이해, 교수 신뢰도에서, 원어민 교수는 수업 구성에서 만족도가 더 높았다(하명애 2013). 이에 하명애(2010)는 단순히 회화는 원어민 교수가, 문법은 한국인 교수가 맡아야 한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교과목 성격과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교과목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은 일반 단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령기 학습자를 위한 교양 영어의 운영 현황을 잘 보여주고 있으나, 성인학습자가 학령기 학습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Kasworm 2003, Knowles 1980, Knowles et al. 2005, Ross-Gordon 2003, Thoms 2001) 그 연구 결과를 성인학습자에게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2.2 대학에서의 성인학습자 대상 교양 영어 연구

최근에는 성인학습자의 영어 학습에 관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김양홍 2021, 김영우, 김주혜 2016, 정현숙 2016). 가령 정현숙(2016)은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영어회화> 교과목을 수강하는 성인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조사했다. 96명을 대상으로 학습 동기를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인 동기는 내적 동기였고, 사회문화적 동기, 도구적 지식 동기, 동일시 동기가 그 뒤를 이었다. 내적 동기가 가장 높게 나온 결과에 대해 정현숙은 평생학습 자체가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자발성을 요구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또한 정현숙은 성별, 연령, 학력과 같은 성인학습자 변인에 따라 학습 동기가 다를 수 있는지 보았는데, 성별과 달리 연령과 학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되었다. 가령 사회문화적 동기는 20대에게서 가장 높게 관측되었고, 내적 동기 중 “영어 학습에 관한 호기심 때문에” 문항의 평균값은 20-30대가 40-50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문화적 동기는

학력과 비례하여 높게 나타났는데, 정현숙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학력이 높을수록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정도가 높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현숙은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연령과 학력 수준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김양홍(2021)은 평생교육원 영어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성인학습자의 중도 포기율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성인학습자의 수업 만족도 및 수업 참여도와 관련 있는 변수를 찾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김양홍은 43개 객관식 문항에 대해 신뢰도 검사를 실시했으며, 가장 높은 신뢰도가 나온 32개 항목에 대해 이변량 상관계수를 구했다. 우선 학습자 기본 정보와 인식 사이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 항목은 학력과 학습 동기, 학력과 수업 만족도, 학습 동기와 수업 만족도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학습 동기와 수업 만족도가 높았고, 학습 동기가 높을수록 수업 만족도 역시 높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러 학습 동기 항목 중 수업 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준 요인은 “앞으로의 인생을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서”라는 항목이 유일했다. 다음으로 수업 참여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준 항목은 학습 동기와 수업 만족도로 각각 60.8%와 80.7%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평생교육원에서 영어를 학습하는 성인학습자의 경우, 학습 동기가 높을수록 혹은 수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수업 참여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영우와 김주혜(2016)는 한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에는 K사이버대학 재학생 892명 중 210명이 참여하였으며(참여율 24%), 44.3%의 응답자가 6-10년간 영어를 공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본인의 영어 수준을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59.1%). 또한 응답자의 절반(50.0%)이 영어를 전혀 혹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던 반면, 영어에 흥미가 (매우) 있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3.3%에 달했다. 요구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1.4%가 영어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고, 90.5%가 영어 학습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 또한 영어 필요성과 영어 학습 의지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더 강력한 영어 학습 의지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영어 사용 정도, 영어에 대한 흥미, 영어 수준과 관련된 항목들은 영어 필요성과 영어 학습 의지와는 관련이 없었다. 즉, 성인학습자는 영어 사용 정도, 영어에 대한 흥미, 영어 수준과 상관없이 영어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영어 학습 의지가 있었다.

김영우와 김주혜는 연령, 전공, 직업, 영어 사용 정도, 영어 수준과 같은 특성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요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가로 분석했다. 가령 영어 필요성의 경우, 51세 미만의 성인학습자가 51세 이상의 성인학습자보다, 어학 전공의 성인학습자가 다른 전공의 성인학습자보다, 영어를 사용하는 학습자가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학습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어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았다. 반면 영어 학습에 대한 의지의 경우, 연령, 전공, 직업, 영어 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즉, 적어도 영어 학습에 대한 의지는 성인학습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성인학습자가 학습을 선호하는 영어 유형은 특수 목적 영어(ESP,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19.2%)보다는 일반 영어(EGP, English for General Purposes)(80.8%)로 나타났으며, 스스로 영어 수준이 높다고 생각한 집단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특수 목적 영어에 대한 선호도(55.6%)가 일반 영어에 대한 선호도(44.4%)보다 높았다. 다음으로 성인학습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영어 학습 동기(복수 응답 가능)는 “직장에서 업무를 위해”였으며, “해외 여행을 위해”와 “영어가 국제어라서”가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가장 학습하고자 하는 영어

능력은 “영어로 일상적인 대화하기”로 구두 영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성인학습자는 영어 학습의 어려움으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 부족, 시간 부족, 알맞은 영어 과목 (프로그램) 부재, 교육 내용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성인학습자는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고 여러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학령기 학습자와 다른 성격을 지닌다(Kasworm 2003, Knowles 1980, Knowles et al. 2005, Ross-Gordon 2003, Thoms 2001). 특히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향을 고려한다면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성인학습자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Kilgore 2003, Knowles 1980, Knowles et al. 2005, Ross-Gordon 2003, Thoms 2001). 다만 성인학습자의 영어 학습을 다룬 기존 연구들의 경우, 비형식교육기관인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준형식교육기관인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어 형식교육기관인 종합대학의 평생교육 단과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에게 그 연구 결과를 단순하게 적용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한계를 고려하여 평생교육 단과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양 영어 교육에 대한 요구 분석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과 그 후속 사업인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대학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에 위치한 해당 대학은 2016년 성인학습자 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인 “미래융합대학”을 신설했으며, 일반 단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령기 학습자와 동일한 교양 교육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일반 단과대학의 경우, 입학 전 모의토익 점수를 기반으로 필수 영어 교과목의 수준별 분반을 운영하는 반면, 미래융합대학의 경우, 입학 전 진단평가에 대한 일부 학생들의 반발이 있어 2019년부터 진단평가를 폐지하고 수준별 분반 선택을 학생 자율에 맡기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율 선택에 의한 수준별 분반 운영에 대해 학생들과 담당 교수진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중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대학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요구조사를 시행했던 김영우와 김주혜(2016)의 연구를 참고하고 해당 미래융합대학 교학팀의 의견을 반영하여 온라인 설문지를 제작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온라인 설문지는 구글 폼(Google Forms)으로 제작되었으며,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기본 정보 문항 9개, 요구조사 문항 16개). 우선 기본 정보 문항에는 성인학습자의 소속 학과, 연령대, 입학전형, 취업 상태, 영어권 국가 체류 기간, 영어 실력, 평소 영어 사용 정도 등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요구 조사 문항에는 성인학습자의 영어 학습 필요 정도, 영어 학습 필요 영역, 수준별 분반 찬반 정도 및 이유, 입학 전 영어 진단평가 찬반 정도, 수준별 분반을 위한 건의 사항, 선호하는 교수자 유형, 선호하는 강의 진행 언어, 개설을 희망하는 영어 선택 교과목 및 비교과 과목 등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다(부록 1).

본 연구에서는 김양홍(2021)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인터뷰를 대체할 수 있도록 영어 학습이

필요한 이유, 수준별 분반을 위한 건의 사항과 더불어 개설을 희망하는 교과 및 비교과 과목 등을 개방형 문항으로 설계하여 성인학습자의 의견을 직접 수집했다(폐쇄형 17문항, 개방형 8문항). 다만 응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개방형 문항은 선택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응답자는 개방형 문항에 응답할 수도 혹은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온라인 설문지의 링크는 해당 미래융합대학 재학생 516명에게 문자로 배포되었으며, 설문조사는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1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다. 첫 번째(폐쇄형 1문항(Q10), 복수 선택 가능 폐쇄형 1문항(Q12), 개방형 1문항(Q11)) 연구 문제를 제외한 두 번째(폐쇄형 3문항(Q13-14, Q16), 개방형 2문항(Q15, Q18))와 세 번째(폐쇄형 4문항(Q19-20, Q21-22), 개방형 2문항(Q23-24)) 연구 문제에서 폐쇄형 문항의 신뢰도 계수(Chronbach's alpha)는 각각 0.79와 0.75로 허용 기준을 충족했다($\alpha \geq .7$).

3.2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성인학습자는 총 105명(중복 응답자 제외, 회수율 20.35%)이었으며, 폐쇄형 문항을 통해 수집된 양적 자료는 양적 자료 분석 방법으로, 개방형 문항을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는 질적 자료 분석 방법으로 각각 분석되었다. 우선 성별(Q01), 입학 연도(Q02), 학과(Q03), 연령대(Q04), 입학전형(Q05), 취업 상태(Q06), 영어권 국가 체류 기간(Q07), 영어 수준(Q08), 학습이 필요한 영어 영역(Q12), 선호하는 교수자 유형(Q19-20), 선호하는 강의 진행 언어(Q21-22)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빈도수와 퍼센트로 계산되었다. 다음으로 평소 영어 사용 정도(Q09), 영어 학습 필요 정도(Q10), 영어 교과목 수준별 분반 찬반 정도(Q13-14), 입학 전 영어 진단평가 찬반 정도(Q16)를 묻는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 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빈도수 외에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이 추가로 계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응답자의 요구와 관련된 양적 자료(Q10, Q13-14, Q16, Q19-22)가 응답자의 기본 정보(Q01-09)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범주형 자료(명목형 자료, 순서형 자료)를 다루므로 비모수 검정이면서 반복 측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형 I 오류(Type I Error)를 피할 수 있는 PERMANOVA(Permutational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Anderson 2017)를 실시했다(순열 반복 9,999회, $\alpha = .05$). 독립변수로는 각각의 기본 정보 문항의 응답이, 종속변수로는 각각의 요구 분석 문항의 응답을 기반으로 가워 거리(Gower's distance)를 통해 생성된 비유사성/거리 행렬(dissimilarity/distance matrix)이 설정되었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 다변량 분산 동질성 검정을 시행한 결과, 10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항에서 동질성이 충족되었다($p > .05$). 본 연구에서는 PERMANOVA의 분석 결과(부록 2)가 유의미하게 나온 경우($p \leq .05$), 사후 검정(post-hoc pairwise PERMANOVA)을 추가로 실시하여 집단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으며, 마찬가지로 반복 측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형 I 오류를 피하고자 본페로니 보정(Bonferroni adjustment)을 적용했다(부록 3).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어 학습 필요 이유(Q11), 수준별 분반 찬성 혹은 반대 이유(Q15), 수준별 분반에 대한 건의 사항(Q18), 개설 희망 교과 및 비교과 과목(Q23-24)을 개방형 문항으로 제작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수집했다. 질적 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 이들 문항에 대한 응답은 개별 코딩 과정을 거쳤으며, 필요한 경우, 서로 내용을 비교하여 범주(category)로 분류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코드와 범주에 대해 빈도수와 퍼센트를 계산하여 제시했다. 양적 자료 분석에는 R(R Core Team 2023)과 RStudio(Posit team 2023)가, 질적 자료 분석에는 Microsoft Excel이 사용되었다.

3.3 응답자의 기본 정보

본 연구에서는 9개의 문항(Q01-09)을 통해 성별, 입학 연도, 학과, 연령대, 입학전형 등과 같은 기본 정보를 105명의 응답자에게서 수집했다(표 1-2). 우선 응답자의 성별(Q01)은 여성이 79명(75.24%), 남성이 26명(24.76%)이었으며, 입학 연도(Q02)는 2022학번(45명, 42.86%), 2021학번(29명, 27.62%), 2019학번(18명, 17.14%), 2020학번(13명, 12.38%) 순이었다. 입학 연도의 경우, 2022학번이 영어 교과목을 지난 1년간 수강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1년을 더 수강해야 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학과 분포(Q03)는 부동산학과(27명, 25.71%), 사회복지학과(21명, 20.00%), 심리치료학과(20명, 19.05%), 미래융합경영학과(17명, 16.19%), 법무행정학과(9명, 8.57%), 창의융합인재학부(6명, 5.71%), 멀티디자인학과(5명, 4.76%) 순이었다. 연령대(Q04)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응답자는 20대(44명, 41.90%)였으며, 50대(20명, 19.05%), 60대 이상(15명, 14.29%), 40대(14명, 13.33%), 30대(12명, 11.43%)가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57.14%(60명)는 정원의전형인 특성화고등졸재직자전형으로, 42.86%(45명)는 정원내전형인 성인학습자전형으로 입학했으며(Q05), 설문지를 제출할 때 75.24%(79명)의 응답자는 취업 중으로, 24.76%(26명)의 응답자는 취업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Q06).

영어권 국가에 거주한 기간을 묻는 문항(Q07)에 응답자의 대부분(94명, 89.52%)은 거주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6명(5.71%)의 응답자는 6개월 미만, 3명(2.86%)의 응답자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명(0.95%)의 응답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거주 경험이 있었다. 나머지 1명(0.95%)의 응답자는 극히 예외적으로 3년 이상 영어권 국가에 거주한 경험이 있었다. 자가 평가한 영어 수준(Q08)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자신의 영어 실력을 초급(96명, 91.43%)으로 평가했으며, 중급(8명, 7.62%)과 고급(1명, 0.95%)이 그 뒤를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초급 비율은 사이버대학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삼은 김영우와 김주혜(2016)의 연구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210명 기준: 매우 낮음 16.2%, 낮음 42.9%, 보통 32.4%, 높음 7.6%, 매우 높음 1.0%). 비록 김영우와 김주혜의 연구에서는 이공 계열 학생들이 33.8%에 달했으나, 아예 영어가 전공인 학생들도 있었다. 더욱이 최종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은 27.6%밖에 되지 않았던 반면, 2년제/4년제 대학 졸업은 45.2%였고, 심지어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을 한 학생들도 5.2%나 되어, 학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두 연구 모두 영어 수준이 응답자가 스스로 평가한 결과라 응답자의 수준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전공과 학력의 차이가 두 연구의 영어 수준 차이로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본 정보를 묻는 마지막 문항인 평소 영어 사용 정도를 묻는 문항(Q09)에 93명(88.57%)의 응답자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매우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표 2). 반면 김영우와 김주혜(2016)의 연구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이 50.0%(105명)에 불과했으며, 자주 사용하는 응답자는 12.9%(27명), 매우 자주 사용하는 응답자 역시 12.9%(28명)에 달했다. 본 연구가 형식교육기관인 평생교육 단과대학의 성인학습자를,

김영우와 김주혜의 연구가 준형식교육기관인 사이버대학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성인학습자라도 교육기관에 따라 그 성격이 매우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응답자의 기본 정보 (1)

성별(Q01)	남성		여성		합계			
빈도수	26		79		105			
퍼센트	24.76		75.24		100.00			
입학연도(Q02)	6019	6020	6021	6022	합계			
빈도수	18	13	29	45	105			
퍼센트	17.14	12.38	27.62	42.86	100.00			
학과(Q03)	[1]	[2]	[3]	[4]	[5]	[6]	[7]	합계
빈도수	6	21	27	9	20	17	5	105
퍼센트	5.71	20.00	25.71	8.57	19.05	16.19	4.76	100.00
[1] 창의융합인재학부, [2] 사회복지학과, [3] 부동산학과, [4] 법무행정학과, [5] 심리치료학과, [6] 미래융합경영학과, [7] 멀티디자인학과								
연령대(Q04)	[1]	[2]	[3]	[4]	[5]	[6]	합계	
빈도수	0	44	12	14	20	15	105	
퍼센트	0.00	41.90	11.43	13.33	19.05	14.29	100.00	
[1] 만 20세 미만, [2] 만 20-29세, [3] 만 30-39세, [4] 만 40-49세, [5] 만 50-59세, [6] 만 60세 이상								
입학전형(Q05)	성인학습자전형			특성화고등졸재직자전형			합계	
빈도수	45			60			105	
퍼센트	42.86			57.14			100.00	
취업 상태(Q06)	취업 중			취업 준비 중			합계	
빈도수	79			26			105	
퍼센트	75.24			24.76			100.00	
영어권 국가 체류 경험(Q07)	[1]	[2]	[3]	[4]	[5]	합계		
빈도수	94	6	3	1	1	105		
퍼센트	89.52	5.71	2.86	0.95	0.95	100.00		
[1] 없음, [2] 6개월 미만, [3] 6개월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3년 미만, [5] 3년 이상								
영어 수준(Q08)	초급		중급		고급		합계	
빈도수	96		8		1		105	
퍼센트	91.43		7.62		0.95		100.00	

표 2. 응답자의 기본 정보 (2): 평소 영어 사용 정도

Q09	[1]	[2]	[3]	[4]	[5]	합계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빈도수	69	24	10	2	0	105				
퍼센트	65.71	22.86	9.52	1.91	0.00	100.00				
빈도수	93		10		2		105	1.48	0.75	1
퍼센트	88.57		9.52		1.91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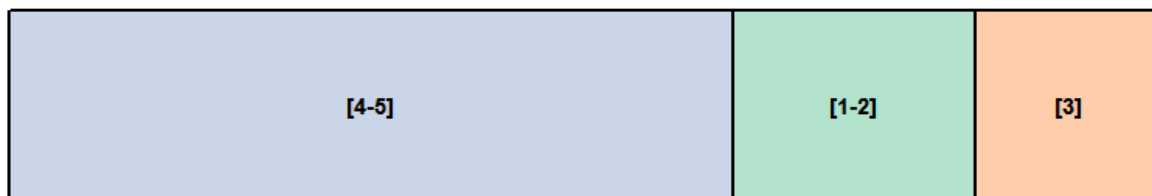
[1]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5] 매우 자주 사용한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영어 학습에 대한 요구

본 연구에서는 우선 폐쇄형 및 개방형 문항을 통해 성인학습자의 영어 학습에 대한 요구와 이유를 살펴보았다. 우선 영어 학습의 필요 정도(Q10)를 묻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62.85%(66명)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그림 1, 표 3). 이는 앞서 88.57%의 응답자가 평소에 영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과 비교된다. 다만 영어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역시 김영우와 김주혜(2016)의 비율보다는 훨씬 낮은 편이었다(91.4%).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영어 학습 필요 정도가 응답자의 기본 정보(Q01-09)에 따라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PERMANOVA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영어 학습 필요 정도에서는 성별(Q01: $F = 1.513, p = 0.191$), 학번(Q02: $F = 0.737, p = 0.691$), 학과(Q03: $F = 1.238, p = 0.214$), 연령대(Q04: $F = 1.366, p = 0.166$), 입학전형(Q05: $F = 2.472, p = 0.051$), 취업 상태(Q06: $F = 0.933, p = 0.425$), 영어권 국가 체류 기간(Q07: $F = 0.771, p = 0.770$), 영어 수준(Q08: $F = 0.847, p = 0.485$), 평소 영어 사용 정도(Q09: $F = 0.991, p = 0.466$)에 따른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부록 2). 이러한 결과는 영어를 사용하는 학습자가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학습자보다 영어를 더 필요로 했다는 김영우와 김주혜(2016)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데, 아마도 본 연구에서 평소에 영어를 사용하는 학습자 수가 매우 적어(2명, 1.9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5] (매우) 필요하다, [1-2]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림 1. 영어 학습 필요 정도(Q10)

표 3. 영어 학습 필요 정도

Q10	[1]	[2]	[3]	[4]	[5]	합계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빈도수	11	11	17	23	43	105			
퍼센트	10.48	10.48	16.19	21.90	40.95	100.00			
빈도수		22	17		66	105	3.72	1.37	4
퍼센트		20.95	16.19		62.86	100.00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5] 매우 필요하다.

개방형 문항(Q11)을 통해 수집된 영어 학습 필요 이유를 보면(표 4),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이유는 단순히 영어가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19건, (1))이었다.

(1) 글로벌 시대 영어는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047, 심리치료학과, 50대, 초급)

다음으로 실생활에서의 영어 사용(15건, (2))과 취업 혹은 이직 준비(14건, (3))가 그 뒤를 이었다.

(2) 영어를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니 배울 필요는 있을 것 같다. (#089, 창의융합인재학부, 40대, 초급)

(3) 영어로 대화할 정도는 되어야 이직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음. (#011, 미래융합경영학과, 20대, 초급)

표 4. 영어 학습 필요 이유

순위	영어 학습 필요 이유(Q11)	빈도수	퍼센트
1	영어는 필수	19	25.68
2	실생활에서의 영어 사용	15	20.27
3	취업/이직 준비	14	18.92
4	업무	7	9.46
5	학업	6	8.11
6	해외여행	5	6.76
6	자기개발	5	6.76
8	실생활 사용 안 함	2	2.70
9	학습 기회 없음	1	1.35
	합계	74	100.00

반면 업무 이유(7건)와 학업 이유(6건)는 비교적 적게 언급되었는데, 사이버대 성인학습자들이 업무 이유를 가장 많이 지목한 것(김영우, 김주혜 2016)과 비교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오히려 학령기 학습자에게 특수 목적의 영어(ESP,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나 학문 목적의 영어(EAP,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가 그다지 필요 없음을 시사했던 선행 연구(서정아 2018, 서혜진 2020, 하명애 2010)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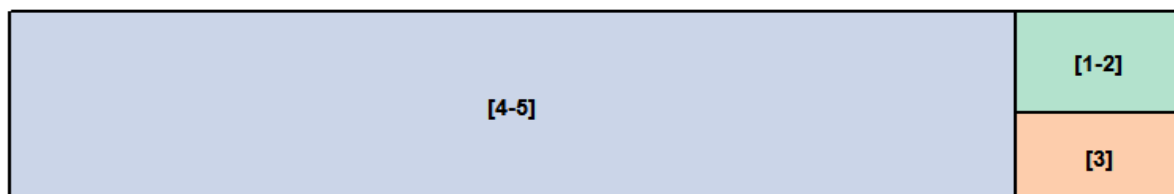
응답자들은 구체적으로 영어 학습이 필요한 영역(Q12, 복수 선택 가능)으로 영어 말하기(91명)와 영어 듣기(68명)를 꼽았다(표 5). 즉, 선행 연구(김영우, 김주혜 2016, 서정아 2018, 하명애 2010)와 마찬가지로 성인학습자 역시 읽기나 쓰기보다는 회화를 위한 영어 학습을 더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의외로 본 연구에서는 토익과 같은 영어 시험 준비를 위한 영어 학습에 대한 필요성은 다른 영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28명).

표 5. 영어 학습 필요 영역(복수 선택 가능)

순위	영어 학습 필요 영역(Q12)	빈도수	퍼센트
1	영어 말하기	91	23.45
2	영어 듣기	68	17.53
3	영어 읽기	56	14.43
4	영어 문법	49	12.63
4	영어 쓰기	49	12.63
6	영어 어휘	42	10.83
7	시험 준비(예: 토익)	28	7.22
8	해당 사항 없음	5	1.29
합계		388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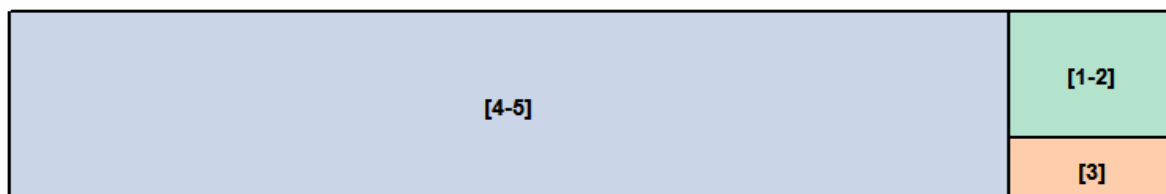
4.2 교양 영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요구

본 연구에서는 폐쇄형 및 개방형 문항을 통해 성인학습자 대상 교양 영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요구를 조사했다. 우선 영어 수준에 따라 교양 필수인 일반 영어 교과목(Q13)과 영어회화 교과목(Q14)을 분반하는 데 양쪽 모두 90명(85.71%)의 응답자가 (매우) 찬성했으며, (매우) 반대하는 응답자는 양쪽 모두 10%에도 미치지 못했다(그림 2-3, 표 6). 즉, 성인학습자의 대부분은 학령기 학습자와 마찬가지로(권선희 2012, 김영미 2010, 김영숙, 이지연 2009, 박찬규 2013, 방영주 2014, 서정아 2018, 서혜진 2020, 조정순 2002, 하명애 2010) 수준별 분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4-5] (매우) 찬성, [1-2] (매우) 반대

그림 2. 일반 영어 교과목의 수준별 분반 찬반 정도(Q13)



[4-5] (매우) 찬성, [1-2] (매우) 반대

그림 3. 영어회화 교과목의 수준별 분반 찬반 정도(Q14)

표 6. 영어 교과목의 수준별 분반 찬반 정도

Q13	[1]	[2]	[3]	[4]	[5]	합계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빈도수	6	2	7	20	70	105			
퍼센트	5.71	1.90	6.67	19.05	66.67	100.00	4.39	1.09	5
빈도수		8	7		90	105			
퍼센트		7.62	6.67		85.71	100.00			
Q14	[1]	[2]	[3]	[4]	[5]	합계	평균	표준편차	중간값
빈도수	7	3	5	18	72	105			
퍼센트	6.67	2.86	4.76	17.14	68.57	100.00	4.38	1.15	5
빈도수		10	5		90	105			
퍼센트		9.52	4.76		85.71	100.00			

[1] 매우 반대, [5] 매우 찬성

Q13: 일반 영어 교과목(예: <영어1>, <영어2>)

Q14: 영어회화 교과목(예: <영어회화1>, <영어회화2>)

일반 영어 교과목(예: <영어1>, <영어2>)의 경우, 성인학습자의 응답에서 성별(Q01: $F = 1.643, p = 0.178$), 학번(Q02: $F = 1.793, p = 0.090$), 학과(Q03: $F = 0.869, p = 0.581$), 연령대(Q04: $F = 0.434, p = 0.932$), 입학전형(Q05: $F = 0.400, p = 0.721$), 취업 상태(Q06: $F = 1.027, p = 0.351$), 영어권 국가 체류 기간(Q07: $F = 0.456, p = 0.882$), 영어 수준(Q08: $F = 1.793, p = 0.159$), 평소 영어 사용 정도(Q09: $F = 1.323, p = 0.239$)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부록 2). 영어회화 교과목(예: <영어회화1>, <영어회화2>)에서도 역시 성인학습자의 응답에서 성별(Q01: $F = 1.733, p = 0.150$), 학번(Q02: $F = 2.010, p = 0.056$), 학과(Q03: $F = 0.741, p = 0.725$), 연령대(Q04: $F = 0.607, p = 0.803$), 입학전형(Q05: $F = 0.166, p = 0.918$), 취업 상태(Q06: $F = 1.279, p = 0.256$), 영어권 국가 체류 기간(Q07: $F = 0.768, p = 0.633$), 영어 수준(Q08: $F = 2.139, p = 0.105$), 평소 영어 사용 정도(Q09: $F = 1.175, p = 0.330$)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부록 2).

본 연구에서 수준별 분반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유(Q15, 표 7)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찬성 이유는 수준별 분반이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다(29건, (4)).

- (4) 수준별로 분반이 되면 낮은 반이 됐을 때 조금 창피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실력에 맞게 교수님이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 비슷한 수준의 학우들과 공부하는 게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05, 심리치료학과, 20대, 초급)

반면 수준별 분반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초급반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분반이 의미가 없다는 의견(3건, (5))과 수준별 분반이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의견(2건, (6))이 있었다. 또한 수준별 분반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달리 오히려 분반을 안 나누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2건, (7)).

- (5) 진짜 실력대로 분반이 된다면 대찬성이나 잘하는 사람이 초급에 들어와 학점을 잘 받기

- 위한 제도로 전략! 왕초보인 내가 클릭이 늦어 중상반 들어가 고생했던 기억이 난다. 교수님은 중상반 수준에 맞춰 진행을 하다 보니 영어가 싫었다. (#025, 사회복지학과, 40대, 초급)
- (6) 영어도 못하고 어려운데 차별받는 생각이 들 것이다. (#058, 사회복지학과, 60대, 초급)
- (7) 잘하는 친구에게 물어도 보고 회화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못하는 친구들만 모여 있다면 발전이 없을 것이다. (#052, 부동산학과, 30대, 초급)

표 7. 수준별 분반 찬성 혹은 반대 이유

순위	범주	수준별 분반 찬성 혹은 반대 이유(Q15)	빈도수	합계	퍼센트
1	찬성	학습에 도움	29	57	83.82
		수준에 맞는 학습 필요	18		
		원활한 수업 진행	4		
		성인학습자 배려 필요	2		
		학습에 흥미	2		
		공평한 성적	1		
		심리적 편안함	1		
2	반대	분반 무의미	3	7	10.29
		열등감 조장	2		
		학습에 도움	2		
3	기타	세분화 필요	2	4	5.88
		교수 선택 가능 희망	1		
		선행 설문조사 실시 후 수강신청 필요	1		
합계			68	100.00	

전체 응답자의 85.71%가 수준별 분반에 찬성했지만, 수준별 분반을 위한 입학 전 영어 시험 시행에 (매우) 찬성하는 응답자는 절반이 조금 넘는 60.95%(64명)에 불과했다(Q16, 그림 4, 표 8). 반면 18.10%(19명)의 응답자는 영어 진단평가 시행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영어 진단평가 시행에 대한 성인학습자의 응답은 성별(Q01: $F = 1.824, p = 0.128$), 학번(Q02: $F = 1.286, p = 0.228$), 학과(Q03: $F = 0.995, p = 0.453$), 연령대(Q04: $F = 1.680, p = 0.066$), 입학전형(Q05: $F = 0.375, p = 0.798$), 취업 상태(Q06: $F = 0.309, p = 0.846$), 영어권 국가 체류 기간(Q07: $F = 0.621, p = 0.892$), 영어 수준(Q08: $F = 2.103, p = 0.092$), 평소 영어 사용 정도(Q09: $F = 1.588, p = 0.101$)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부록 2).



[4-5] (매우) 찬성, [1-2] (매우) 반대

그림 4. 수준별 분반을 위한 입학 전 영어 시험 시행의 찬반 정도(Q16)

표 8. 수준별 분반을 위한 입학 전 영어 시험 시행의 찬반 정도

Q16	[1]	[2]	[3]	[4]	[5]	합계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빈도수	13	6	22	16	48	105			
퍼센트	12.38	5.71	20.95	15.24	45.71	100.00			
빈도수		19	22	64	105		3.76	1.4	4
퍼센트		18.10	20.95	60.95	100.00				

[1] 매우 반대, [5] 매우 찬성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문항을 통해 수준별 분반에 대한 성인학습자의 건의 사항을 추가로 수집했다(Q18, 표 9). 가장 많이 언급된 건의 사항은 수준별 분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10건), 그 외에 성인학습자 전용 분반이 필요하다는 의견(7건, (8)), 중하반 수강신청이 어렵다는 의견(6건, (9)), 수준별 분반을 해도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달라는 의견(3건, (10))이 있었다.

- (8) 성인학습자 위해 반을 만들어 수업해주시길. (#096, 창의융합인재학부, 60대 이상, 초급)
- (9) 현재의 선착순 신청은 영어 수업과 관련 없는 컴퓨터 활용능력을 요함. (#017, 부동산학과, 40대, 초급)
- (10) 대학생은 성인입니다. 분반으로 차별이 생길 수 있고, 분반이 필요하면 초중급반, 고급반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에 찬성하고 싶습니다. (#061, 사회복지학과, 50대, 초급)

이 중에서 성인학습자 전용 분반을 만들어달라는 의견 (8)은 학령기 학습자의 수준별 분반을 다룬 선행 연구(권선희 2012, 김성혜, 임자연 2013, 김영미 2010, 김영숙, 이지연 2009, 김현욱, 이해경 2010, 박찬규 2013, 방영주 2014, 서정아 2018, 서혜진 2020, 조정순 2002, 하명애 2010)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건의 사항이었다. 이 의견을 낸 7명의 나이대를 보면 40대 1명, 50대 2명, 60대 이상 4명으로, 최소 40대 이상의 성인학습자는 젊은 성인학습자와 동일한 분반에서 영어 수업을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대학에서는 성인학습자를 위한 수준별 분반을 중상반과 중하반으로 나누어 운영 중인데, 학생들이 직접 분반 선택을 하며 중상반과 중하반의 성적 등급은 동일하다(A+/A0: 30%, B+/B0 40%, C+ 이하 30%). 그러다 보니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중하반을 신청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정작

중하반에 들어가야 할 초급 학생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의견 (5)). 그래서 의견 (9)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하반에는 실제 영어 실력과 무관하게 컴퓨터를 잘 다뤄 수강신청에 성공한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고,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성인학습자는 정작 중하반에 들어갈 영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중상반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선행 연구(김영숙, 이지연 2009, 방영주 2014, 서정아 2018)에서는 수준별 분반을 운영할 때 성적 평가 방식을 차별화하여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굳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초급반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9. 수준별 분반 관련 건의 사항

순위	수준별 분반 관련 건의 사항(Q18)	빈도수	퍼센트
1	수준별 분반 필요	10	26.32
2	성인학습자 전용 분반 필요	7	18.42
3	중하반 수강신청 어려움	6	15.79
4	학생 선택권 보장 필요	3	7.89
5	분반 세분화 필요	2	5.26
5	잘하는 학생들의 초급반 수강 금지 필요	2	5.26
7	대해 수준별 재분반 필요	1	2.63
7	학기 중 성적으로 분반 필요	1	2.63
7	수준별 분반 불필요	1	2.63
7	변화 시도 후 문제점 보완 필요	1	2.63
7	학생 눈높이 맞춤 강의 필요	1	2.63
7	스트레스 없는 수업 진행 필요	1	2.63
7	원어민 교수 불만족	1	2.63
7	학교 방침 존중	1	2.63
	합계	38	100.00

4.3 교양 영어 교과목 운영에 대한 요구

4.3.1 교양 영어 필수 교과목 운영에 대한 요구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필수 교과목인 일반 영어 교과목(예: <영어1>, <영어2>)과 영어회화 교과목(예: <영어회화1>, <영어회화2>)에서 성인학습자가 선호하는 교수자 유형을 물었다(그림 5-6, 표 10). 일반 영어 교과목의 경우(Q19, 그림 5), 한국인 교수를 선호하는 응답자는 79명(75.24%)이었으며, 원어민 교수를 선호하는 응답자는 8명(7.62%)에 불과했다. 영어회화 교과목의 경우(Q20, 그림 6), 일반 영어 교과목보다는 원어민 교수를 비교적 더 선호했는데, 한국인 교수를 선호하는 응답자는 52명(49.52%)으로 줄어든 반면, 원어민 교수를 선호하는 응답자는 30명(28.57%)으로 늘어나서, 상관없다고 응답한 학생 수보다 많아졌다(23명, 21.90%).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학습자가 말하기와 듣기 강의에서 원어민 교수를 선호했던 기존 연구 결과를 상기시킨다(여경희 2012). 다만 학령기 학습자의 전반적인 선호도(여경희 2012)와 달리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에게서는 일반 영어 교과목과 영어회화 교과목 모두 한국인 교수에 대한 선호도가 원어민 교수에 대한 선호도보다 높았다. 이는 아마도 본 연구의 응답자 대부분이 초급 수준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가령 학령기 학습자들은 초급 수준의 학습자에게는 한국인 교수가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여경희 2012, 하명애 2010, 2013).



[2] 한국인 교수, [3] 상관없음, [1] 원어민 교수
 그림 5. 일반 영어 교과목의 선호 교수자 유형(Q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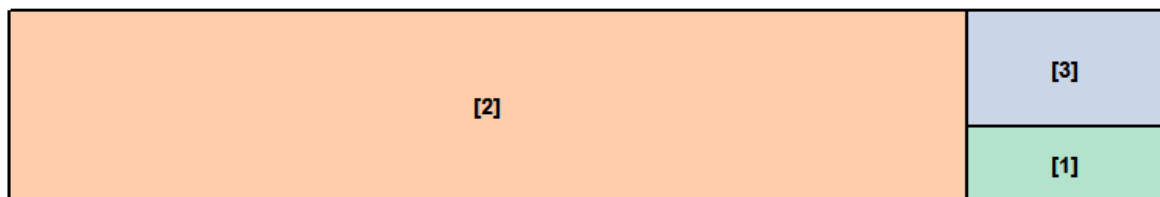
[2] 한국인 교수, [1] 원어민 교수, [3] 상관없음
 그림 6. 영어회화 교과목의 선호 교수자 유형(Q20)

선호 교수자 유형과 관련하여 일반 영어 교과목(Q19)에서는 성별(Q01: $F = 1.279, p = 0.263$), 학번(Q02: $F = 1.103, p = 0.354$), 학과(Q03: $F = 1.497, p = 0.151$), 연령대(Q04: $F = 1.557, p = 0.158$), 입학전형(Q05: $F = 1.720, p = 0.182$), 취업 상태(Q06: $F = 0.985, p = 0.357$), 영어권 국가 체류 기간(Q07: $F = 2.153, p = 0.057$), 영어 수준(Q08: $F = 2.061, p = 0.135$), 평소 영어 사용 정도(Q09: $F = 0.461, p = 0.779$)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영어회화 교과목(Q20)에서는 성별(Q01: $F = 1.933, p = 0.150$), 학번(Q02: $F = 1.701, p = 0.126$), 연령대(Q04: $F = 1.241, p = 0.277$), 입학전형(Q05: $F = 0.111, p = 0.894$), 취업 상태(Q06: $F = 0.202, p = 0.821$), 영어권 국가 체류 기간(Q07: $F = 1.192, p = 0.288$), 영어 수준(Q08: $F = 2.342, p = 0.095$), 평소 영어 사용 정도(Q09: $F = 0.408, p = 0.892$)와 달리 학과(Q03: $F = 2.437, p = 0.007$)로 인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부록 2). 이에 사후 검정을 시행했으며, 법무행정학과와 심리치료학과, 법무행정학과와 사회복지학과, 미래융합경영학과와 심리치료학과, 미래융합경영학과와 사회복지학과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반복 측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형 I 오류(Type I Error)를 피하고자 본페로니 보정을 적용했으며, 그 결과 모든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3). 이러한 결과는 본페로니 보정이 유의미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각 집단의 응답자 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기에 충분하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다.

표 10. 일반 영어 및 영어회화 교과목의 선호 교수자 유형

일반 영어(Q19)	[1] 원어민 교수	[2] 한국인 교수	[3] 상관없음	합계
빈도수	8	79	18	105
퍼센트	7.62	75.24	17.14	100.00
영어회화(Q20)	[1] 원어민 교수	[2] 한국인 교수	[3] 상관없음	합계
빈도수	30	52	23	105
퍼센트	28.57	49.52	21.90	100.00

다음으로 일반 영어 교과목과 영어회화 교과목에서 성인학습자가 선호하는 강의 진행 언어를 물었을 때(그림 7-8, 표 11), 두 교과목 모두 한국어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강의 진행 언어로서 한국어에 대한 선호도는 일반 영어 교과목에서는 82.86%(87명), 영어회화 교과목에서는 62.86%(66명)이었으며, 이는 각각 영어에 대한 선호도의 약 12배, 2.5배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선호하는 교수자 유형(그림 5-6, 표 10)과 비교해 보면, 일반 영어 교과목과 영어회화 교과목 모두 영어 강의에 대한 선호도는 원어민 교수에 대한 선호도보다 낮았고, 한국어 강의에 대한 선호도는 한국인 교수에 대한 선호도보다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원어민 교수를 선호하는 성인학습자 중 일부가 선호하는 강의 진행 언어로 영어를 선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가령 일반 영어 교과목에서는 원어민 교수를 선호하는 8명의 응답자 중 3명이, 영어회화 교과목에서는 원어민 교수를 선호하는 30명의 응답자 중 7명이 한국어 강의를 선호했다. 이렇듯 강의 진행 언어와 무관하게 원어민 교수를 더 선호하는 태도는 원어민이 영어를 더 잘 가르칠 것이라는 편견인 화자 오류(the native speaker fallacy)(Phillipson 1992)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원어민 화자 오류는 송미정과 박용예(2004)의 연구에서 좀 더 분명하게 보이는데, 이 연구에 참여한 학령기 학습자들은 원어민 교수의 장점으로 “원어민에게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한 반면, 한국인 교수의 단점으로는 “발음 문제”, “영미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외에 “강의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짐”을 지적했다.



[2] 한국어로 강의, [3] 상관없음, [1] 영어로 강의
 그림 7. 일반 영어 교과목의 선호 강의 진행 언어(Q21)



[2] 한국어로 강의, [1] 영어로 강의, [3] 상관없음

그림 8. 영어회화 교과목의 선호 강의 진행 언어(Q22)

표 11. 일반 영어 및 영어회화 교과목의 선호 강의 진행 언어

일반 영어(Q21)	[1] 영어로 강의	[2] 한국어로 강의	[3] 상관없음	합계
빈도수	7	87	11	105
퍼센트	6.67	82.86	10.48	100.00
영어회화(Q22)	[1] 영어로 강의	[2] 한국어로 강의	[3] 상관없음	합계
빈도수	26	66	13	105
퍼센트	24.76	62.86	12.38	100.00

일반 영어 교과목의 경우(Q21), 성별(Q01: $F = 0.952, p = 0.314$), 학번(Q02: $F = 0.869, p = 0.500$), 학과(Q03: $F = 1.397, p = 0.177$), 연령대(Q04: $F = 1.168, p = 0.332$), 입학전형(Q05: $F = 0.021, p = 0.977$), 취업 상태(Q06: $F = 0.002, p = 0.998$), 영어 수준(Q08: $F = 2.283, p = 0.109$), 평소 영어 사용 정도(Q09: $F = 0.158, p = 0.972$)와 달리 영어권 국가 체류 기간(Q07: $F = 3.348, p = 0.017$)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에 사후 검정을 시행했으며, “없음” 집단과 “3년 이상” 집단에서 그리고 “없음” 집단과 “1년 이상 3년 미만” 집단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본페로니 보정을 적용한 결과, 이들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부록 3). 이러한 결과는 본페로니 보정을 적용해서였을 수도 있지만 “1년 이상 3년 미만”(1명)과 “3년 이상”(1명)으로 응답한 학생 수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사료된다.

영어회화 교과목(Q22)에서는 성별(Q01: $F = 0.476, p = 0.564$), 연령대(Q04: $F = 1.467, p = 0.179$), 입학전형(Q05: $F = 1.476, p = 0.225$), 취업 상태(Q06: $F = 0.896, p = 0.388$), 영어권 국가 체류 기간(Q07: $F = 1.841, p = 0.066$), 영어 수준(Q08: $F = 0.078, p = 0.933$), 평소 영어 사용 정도(Q09: $F = 0.416, p = 0.855$)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반면 학번(Q02: $F = 2.332, p = 0.046$)과 학과(Q03: $F = 2.034, p = 0.034$)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어 사후 검정을 시행했다. 그 결과, 학번의 경우, 2019학번과 2022학번 사이에서, 학과의 경우, 사회복지학과와 부동산학과 그리고 사회복지학과와 법무행정학과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본페로니 보정을 적용했을 때에는 일반 영어 교과목과 마찬가지로 모든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는데(부록 3), 아무래도 각 집단에서 본페로니 보정의 유의미성 기준을 충족할 만큼 응답자 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3.2. 교양 영어 선택 교과 및 비교과 과목에 대한 요구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양 필수인 일반 영어 교과목과 영어회화 교과목 외에 성인학습자가 개설을 희망하는 교양 영어 선택 교과 및 비교과 과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선행 연구(방영주 2014, 서정아 2018, 조정순 2002)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다양한 선택 교과목이 개설되기를 희망했다. 가령 선택 교과 과목의 경우(Q23, 표 12), 응답자가 가장 개설을 희망하는 교과목은 <기초영어>(28명)였으며, <실용영문법>(18명), <토익>(17명), <비즈니스영어>(13명)가 그 뒤를 이었다. 학점에 포함되지 않아 비교적 부담 없이 수강이 가능한 비교과 과목의 경우(Q24, 표 13), <기초영어회화>(21명), <토익입문>(18명), <기초영문법>(13명)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이러한 과목들은 아무래도 응답자의 대부분이 초급 수준이고, 직장인이 많아 <기초영어>나 <기초영어회화>와 같이 영어의 기초를 닦을 수 있는 과목이나 <토익>이나 <비즈니스영어>와 같은 실용적인 과목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2. 개설 희망 선택 교과 과목

순위	개설 희망 교과 과목(Q23)	빈도수	퍼센트
1	기초영어	28	29.79
2	실용영문법	18	19.15
3	토익	17	18.09
4	비즈니스영어	13	13.83
5	시사영어	6	6.38
6	고급영문독해	5	5.32
7	영어회화	3	3.19
8	기초영문법	2	2.13
9	영어로론	1	1.06
9	중급영어	1	1.06
합계		94	100.00

참고로 영어 학습이 필요한 영역(Q12)에서 토익 등의 시험 준비에 대한 순위는 비교적 낮았던 반면(표 5, 7순위), 개설을 희망하는 선택 교과(Q23, 3순위) 및 비교과(Q24, 1순위) 과목에서는 토익의 순위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해당 항목을 선택한 응답자 수를 비교해 보면, 시험 준비를 선택한 응답자는 28명이었고, 토익을 선택 교과 과목으로 희망한 응답자는 17명, 비교과 과목으로 희망한 응답자는 26명으로 상대적인 순위에서의 차이일 뿐, 실제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13. 개설 희망 비교과 과목

순위	범주	개설 희망 비교과 과목(Q24)	빈도수	합계	퍼센트
1	회화	기초영어회화	21	26	33.33
		영어회화	2		
		중급영어회화	1		
		실전영어회화	1		
		원어민영어회화	1		
1	토익	토익입문	18	26	33.33
		토익실전	7		
		토익	1		
3	문법	기초영문법	13	17	21.79
		문법	3		
		중급영문법	1		
4	기초영어	기초영어	4	4	5.13
5	기타	고급영어독해	1	5	6.41
		영어저널쓰기	1		
		영화영어	1		
		팝송영어	1		
		교재예복습	1		
합계			78		100.00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형식교육기관인 대학의 평생교육 단과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영어 학습, 교육과정, 교과목 등에 대한 요구를 조사했다. 우선 설문조사에 응한 성인학습자의 절반 이상은 영어 학습이 (매우)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가장 큰 이유는 막연히 영어가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 뒤를 이어 실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하기 위해, 취업 혹은 이직 준비를 위해 영어가 필요하다는 이유도 있었으나, 의외로 업무나 학업을 위해 영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했다. 가장 학습이 필요한 영역은 학령기 학습자와 마찬가지로(김영우, 김주혜 2016, 서정아 2018, 하명애 2010) 말하기와 듣기였다. 수준별 분반 역시 학령기 학습자와 마찬가지로(권선희 2012, 김영미 2010, 김영숙, 이지연 2009, 박찬규 2013, 방영주 2014, 서정아 2018, 서혜진 2020, 조정순 2002, 하명애 2010) 응답자의 대부분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수준별 분반을 위해 입학 전 영어 시험을 보는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찬성하는 학생이 반대하는 학생보다 3배 이상 많았다. 필수 교과목(<영어1/2>, <영어회화1/2>)의 교수

유형에서는 원어민 교수보다 한국인 교수를, 강의 진행 언어에서는 영어보다 한국어를 선호하는 학생 수가 훨씬 많았다. 이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초급 수준이어서 비교적 부담이 덜한 한국인 교수와 한국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은 다양한 선택 교과 및 비교과 과목의 개설을 요구했는데, 상당수가 기초 학습자를 위한 과목이거나 실용적인 과목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성인학습자는 비형식교육기관인 사이버대학의 성인학습자(김영우, 김주혜 2016)와는 다소 다른 특성을 보여주었다. 가령 본 연구에서는 평소에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90%에 육박했고, 영어 학습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0%를 겨우 넘긴 수준이었다. 반면 김영우와 김주혜의 연구에서는 평소에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불과했고, 영어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수는 전체 응답자 수의 90%를 넘었다. 두 연구의 가장 큰 차이는 영어 수준에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자신을 초급 수준으로 평가했던 반면, 선행 연구에서는 “매우 낮음”과 “낮음”을 합쳐도 59.1%에 불과했다. 아마도 이러한 차이는 응답자의 전공과 학력에 따른 차이로 보이는데, 특히 본 연구의 성인학습자가 대체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한 것과 다르게 선행 연구에서는 2년제/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응답자가 50%가 넘었다. 이렇듯 성인학습자는 모두 동일한 집단이 아니며(Ross-Gordon 2003), 교육기관 유형에 따라 그 성격이 매우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수준별 분반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습자의 영어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진단평가의 도입(김성혜, 임자연 2013, 김영숙, 이지연 2009, 박찬규 2013, 방영주 2014, 서혜진 2020, 조정순 2002), 각 분반의 학습자 수준에 맞는 교재, 수업 내용, 교수 방법의 선정(권선희 2012, 김영미 2010, 김영숙, 이지연 2009, 김현옥, 이해경 2010, 박찬규 2013, 서혜진 2020), 초급반 학생들의 심리적 거부감 해소(김영미 2010, 박찬규 2013, 조정순 2002), 고급반 학생들을 위한 성적 평가 방식의 차별화(김영숙, 이지연 2009, 방영주 2014, 서정아 2018) 등이 제안되었다. 여기에 추가로 본 연구에 참여한 40대 이상의 성인학습자들은 성인학습자 전용 분반을 개설할 것을 요구했다. 사실 젊은 성인학습자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비교적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영어 학습의 공백이 그다지 길지 않고, 취업이나 이직 준비로 인해 토익 등의 영어 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있을 수 있다. 반면 나이가 많은 성인학습자들은 대개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 영어가 낯선 데다가 노화로 인해 학습 속도 역시 젊은 성인학습자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많은 성인학습자들에게는 단지 영어 수준의 차이뿐만 아니라 나이의 차이 역시 영어 수업의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프로그램에서는 학습자의 영어 수준뿐만 아니라 나이 역시 분반을 할 때 고려할 수 있다(정현숙 2016).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교수가 원어민 교수보다 더 선호되었으며, 강의 진행 언어 역시 한국어가 영어보다 더 선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학습자와 마찬가지로(여경희 2012, 하명애 2010, 2013) 성인학습자 역시 초급 학생들에게는 한국인 교수가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명애(2013)의 연구에서 학령기 학습자들은 한국인 교수가 학생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을 할 수 있어 영어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다만 원어민 교수와 달리 한국인 교수는 고등학교 수업과 크게 차이가 없고 재미가 없다는 단점이 지적되었다. 물론 이러한 단점은 한국인 교수가 다양한 활동을 요구하는 영어회화 과목이 아닌 문법, 독해,

토익 위주의 과목을 주로 맡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일찍이 하명애(2010)는 원어민 교수와 한국인 교수가 맡아야 하는 과목을 나누지 말고 교과목 성격과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교수를 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성인학습자는 과거에 학생으로서 겪었던 부정적인 경험과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Knowles 1980)을 갖고 있기에 교수자는 이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인학습자가 영어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교수자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를 선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형식교육기관인 종합대학의 평생교육 단과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양 영어에 대한 요구 분석을 실시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기 학습자뿐만 아니라 비형식교육기관 혹은 준형식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에게도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더욱이 본 연구가 이뤄진 대학은 서울에 위치하며 일반 단과대학과 동일한 교양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위치하거나 평생교육 단과대학만의 자체 교양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장지연 2020), 시사하는 바가 제한될 수 있다. 비록 성인학습자가 모두 동일한 집단은 아니지만(Ross-Gordon 2003), 분명한 점은 성인학습자가 단순히 성인인 학습자가 아니며(Thoms 2001), 학령기 학습자와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Kasworm 2003). 특히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향(Kasworm 2003, Knowles 1980, Knowles et al. 2005, Ross-Gordon 2003, Thoms 2001)을 고려하면 대학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여 학생들에게 이를 따를 것을 요구하는 기존 하향식(top-down) 의사 결정 방식은 자칫 성인학습자에게 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현재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로 인해 직업전환 및 재취업을 원하는 성인학습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학령기 학습자 수가 줄어들어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성인학습자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대학이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요구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15. 『2016년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안)』 (*Basic Plans for the 2016 Lifelong Education College Support Project*). 세종: 교육부(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17.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안)』 (*Basic Plans for the 2017 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of Education (LiFE) Project*). 세종: 교육부(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18. 『20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안)』 (*Basic Plans for the 2018 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of Education (LiFE) Project*). 세종: 교육부(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19.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안)』 (*Basic Plans for the 2019 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of Education (LiFE) Project*). 세종: 교육부(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23.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LiFE 2.0) 기본계획(안)』 (*Basic Plans for the Second-Term 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of*

- Education (LiFE) Project*). 세종: 교육부(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권선희(Kwon, S.-H.). 2012.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 개선 방안 연구(Development of general English courses at the university level: Analysis of curricular and learner needs). 《영어어문교육》(*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8(4), 211-235.
- 김성혜, 임자연(Kim, S. H. and J. Lim). 2013. 대학교양영어 프로그램의 운영현황(The current state of college English education in Korea). 《현대영어교육》(*Modern English education*) 14(2), 263-290.
- 김양홍(Kim, Y.). 2021. 학습동기, 수업·학습활동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학습참여도와의 상관관계 연구: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영어프로그램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Adult Learners' participation motives, awareness of the class, and learning participation at lifelong education center affiliated with university). 《영어영문학》(*The Mira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26(2), 159-190.
- 김영미(Kim, Y.-m.). 2010. 대학영어의 수준별 교육에 관한 실험 연구(Ability-grouped instruction in college English classes).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5(1), 49-76.
- 김영숙, 이지연(Kim, Y. and J.-y. Yi). 2009. 대학 교양영어 수준별 수업에 대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A study of students' and teachers' perceptions towards level-differentiated general English classes in the university). 《영어교육》(*English Teaching*) 64(4), 337-368.
- 김영우, 김주혜(Kim, Y. and J. Kim). 2016. 한국 성인 학습자의 영어에 대한 요구 조사: K사이버대학생을 중심으로(An analysis of English needs of Korean adult learners: Focusing on students in K Cyber University). 《영어교육연구》(*English Language Teaching*) 28(3), 63-90.
- 김현옥, 이혜경(Kim, H.-O. and H.-K. Lee). 2010. 대학 교양영어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방안(Implementing a level-specific general English program at a tertiary level). 《영어교육연구》(*English Language Teaching*) 22(4), 75-101.
- 김혜경, 윤희정, 진성희(Kim, H. K., H. J. Yun and S.-H. Jin). 2019.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A study on design and development of adult learner-friendly curriculum for general education). 《교양교육연구》(*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3(3), 147-177.
- 박찬규(Park, C.). 2013. 대학 교양영어 수준별 수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학습자와 교수자의 인식도를 중심으로(A study of the effects of a level-specific general English program: Focused on students' and teachers' perceptions). 《언어학 연구》(*Studies in Linguistics*) 29, 105-131.
- 방영주(Bang, Y.). 2014. 효율적인 대학 교양영어교육의 방향 및 제언(Improving a general English program through the students' perceptions at a university). 《현대영어교육》(*Modern English Education*) 15(4), 221-245.
- 서정아(Seo, J.-A.). 2018. 대학 교양영어 수준별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A study of students' perceptions towards level-differentiated general English classes in the university). 《교육문화연구》(*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4(5), 355-374.
- 서혜진(Suh, H.). 2020. 수준별 대학 교양영어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및 인식 연구(A study of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and opinions on level-differentiated instruction of English in general education). 《교사교육연구》(*Teacher Education Research*) 59(4), 601-614.
- 성기완, 표경현, 이현명(Sung, K., K.-h. Pyo and H.-m. Lee). 2004. 대학 교양영어 수준별 교육과정 모형개발연구(Developing a level-specific English cultural curriculum in the university). *Foreign*

- Languages Education* 11(2), 377-406.
- 송미정, 박용예(Song, M.-j. and Y.-Y. Park). 2004. 대학 교양영어 교육의 통합적 접근(An integrated approach to a college freshmen English course: A case study of the college English program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영어교육》(English Teaching)* 59(2), 179-211.
- 여경희(Yeo, K.). 201. 대학 교양영어 수업에서의 원어민교수와 비원어민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 연구(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native English speaking teachers and non-native English speaking teachers). *《영미어문학》(Studies in British and American Language and Literature)* 105, 275-301.
- 연지연(Yeon, J.-Y.). 2019. 한국 대학평생교육정책의 변동과정 분석: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정책변동을 중심으로(An analysis of policy change process in lifelong education at the university of Korea: Based on policy changes from 2008 to 2017).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22(3), 267-296.
- 장지연(Chang, J.-Y.). 2020. 평생교육 단과대학의 교양영어 교육과정 분석: 6개 대학교를 중심으로(An analysis of the college English curricula at lifelong education colleges: Focusing on six universities).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25(2), 153-186.
- 정현숙(Jung, H. S.). 2016. 성인학습자의 영어 학습동기 분석: 평생교육원 영어학습자를 대상으로(An analysis of learning motivation for adult learners: Focusing on L2 English learners in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교육이론과 실천》(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25, 135-157.
- 조정순(Joh, J.). 2002. 대학 교양영어 교육의 현황과 방향성 탐구(Towards a more successful college English program: A survey of teachers and students). *《영어교육》(English Teaching)* 57(2), 365-394.
- 하명애(Ha, M.-A.). 2010. 대학 교양영어 교육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분석 연구(A study of learner satisfaction on college English programs). *《영어교과교육》(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9(2), 269-299.
- 하명애(Ha, M.-A.). 2013. 대학 교양영어 과정에서 학습자가 인지한 원어민과 한국인 교수의 수업의 질과 학습자 태도(A study on the students' perceived quality of class and their learning attitudes in college English courses taught by native English-speaking and Korean professors). *《영어교과교육》(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12(2), 103-128.
- 한승희, 조대연, 최지희(Han, S., D. Cho and J. Choi). 2007. 『평생학습 지표개발 및 통계조사체제 수립 연구』(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Lifelong Learning Indicators and the Establishment of a Statistical Survey System).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진희(Han, J.). 2020. 대학 교양영어 교육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연구(A study on students'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English programs). *《문화와 융합》(Culture and Convergence)* 42, 89-114.
- Anderson, M. J. 2017. Permutational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PERMANOVA). In N. Balakrishnan, T. Colton, B. Everitt, W. Piegorisch, F. Ruggeri and J. L. Teugels, eds., *Wiley StatsRef: Statistics Reference Online*. Available online at <https://doi.org/10.1002/9781118445112.stat07841>
- Kasworm, C. E. 2003. Setting the stage: Adults in higher education. *New Directions for Student Services* 2003(102), 3-10.
- Kilgore, D. 2003. Planning programs for adults. *New Directions for Student Services* 2003(102), 81-88.
- Knowles, M. S. 1980.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From Pedagogy to Andragogy*. New York: Cambridge Adult Education.

- Knowles, M. S., E. F. Holton and R. A. Swanson. 2005. *The Adult Learner: The Definitive Classic in Adult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6th ed. Oxford: Butterworth-Heinemann.
- Phillipson, R. 1992. *Linguistic Imperi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osit team. 2023. *RStudio: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for R* (Version 2023.6.0.421) [Computer software]. Posit Software, PBC. <http://www.posit.co/>
- R Core Team. 2023.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Version 4.3.1) [Computer software].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https://www.R-project.org/>
- Ross-Gordon, J. M. 2003. Adult learners in the classroom. *New Directions for Student Services* 2003(102), 43-52.
- Thoms, K. J. 2001. They're not just big kids: Motivating adult learners. *Proceedings of the 6th Mid-South Instructional Technology Conference*, 1-11.

Examples in: English

Applicable Languages: English

Applicable Level: Tertiary

부록 1 설문지 문항

번호	기본 정보 문항	유형(개수)
Q01	이름(성별)	개방형
Q02	학번(입학 연도)	개방형
Q03	학과	폐쇄형(7)
Q04	연령대(만 나이 기준)	폐쇄형(6)
Q05	입학전형	폐쇄형(3)
Q06	취업 상태	폐쇄형(2)
Q07	영어권 국가 체류 경험	폐쇄형(5)
Q08	본인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폐쇄형(3)
Q09	영어를 평소에 어느 정도 사용하십니까?	폐쇄형(5)
번호	요구 조사 문항	유형(개수)
Q10	영어 학습이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까?	폐쇄형(5)
Q11	영어 학습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를 작성해 주십시오(선택 응답).	개방형
Q12	다음 중 학습이 필요한 영어 영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	폐쇄형(8)
Q13	일반 영어 교과목(예: <영어1>, <영어2>)을 수준별로 분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쇄형(5)
Q14	영어 회화 교과목(예: <영어회화1>, <영어회화2>)을 수준별로 분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쇄형(5)
Q15	영어 교과목의 수준별 분반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이유를 작성해 주십시오(선택 응답).	개방형
Q16	영어 교과목의 수준별 분반을 위해 입학 전 영어 시험(영어 진단평가)을 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쇄형(5)
Q17	입학 전 영어 시험 성적으로 특정 분반에 임의 배정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즉, 별도의 수강 신청 없이 교학팀에서 일괄 배정)	폐쇄형(5)
Q18	영어 교과목의 수준별 분반을 위한 건의 사항을 작성해 주십시오(선택응답).	개방형
Q19	일반 영어 교과목(예: <영어1>, <영어2>)에서 선호하는 "교수자 유형"을 선택해 주십시오.	폐쇄형(3)
Q20	영어 회화 교과목(예: <영어회화1>, <영어회화2>)에서 선호하는 "교수자 유형"을 선택해 주십시오.	폐쇄형(3)
Q21	일반 영어 교과목(예: <영어1>, <영어2>)에서 선호하는 "강의 진행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폐쇄형(3)
Q22	영어 회화 교과목(예: <영어회화1>, <영어회화2>)에서 선호하는 "강의 진행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폐쇄형(3)
Q23	본교 미래융합대학에서 "정규 교과 과목"(학점 취득 가능)으로 개설 희망하는 영어 선택 교과목(예: 기초영어, 실용영문법, 비즈니스영어, 시사영어, 고급영문독해, TOEIC 등)을 작성해 주십시오(선택 응답).	개방형

- Q24 본교 미래융합대학에서 "비교과 과목"으로 개설 희망하는 영어 강좌(예: 기초영어회화, 기초영어문법, 토익입문, 토익실전 등)를 작성해 주십시오(선택 응답). 개방형
- Q25 본교 미래융합대학 교양영어와 관련하여 기타 건의 사항을 작성해 주십시오(선택 응답). 개방형

부록 2 PERMANOVA 결과

DM10	<i>df</i>	<i>SS</i>	<i>R</i> ²	<i>F</i>	<i>p</i>
Q01	1	0.547	0.014	1.513	0.191
Q02	3	0.799	0.021	0.737	0.691
Q03	6	2.685	0.069	1.238	0.214
Q04	4	1.975	0.051	1.366	0.166
Q05	1	0.893	0.023	2.472	0.051
Q06	1	0.337	0.009	0.933	0.425
Q07	4	1.115	0.029	0.771	0.770
Q08	1	0.306	0.008	0.847	0.485
Q09	3	1.075	0.028	0.991	0.466
잔차	80	28.915	0.748		
총합	104	38.648	1.000		
DM13	<i>df</i>	<i>SS</i>	<i>R</i> ²	<i>F</i>	<i>p</i>
Q01	1	0.428	0.016	1.643	0.178
Q02	3	1.402	0.052	1.793	0.090
Q03	6	1.358	0.051	0.869	0.581
Q04	4	0.452	0.017	0.434	0.932
Q05	1	0.104	0.004	0.400	0.721
Q06	1	0.268	0.010	1.027	0.351
Q07	4	0.475	0.018	0.456	0.882
Q08	1	0.467	0.017	1.793	0.159
Q09	3	1.035	0.039	1.323	0.239
잔차	80	20.849	0.777		
총합	104	26.838	1.000		
DM14	<i>df</i>	<i>SS</i>	<i>R</i> ²	<i>F</i>	<i>p</i>
Q01	1	0.428	0.017	1.733	0.150
Q02	3	1.489	0.058	2.010	0.056

Q03	6	1.098	0.042	0.741	0.725
Q04	4	0.599	0.023	0.607	0.803
Q05	1	0.041	0.002	0.166	0.918
Q06	1	0.316	0.012	1.279	0.256
Q07	4	0.759	0.029	0.768	0.633
Q08	1	0.528	0.020	2.139	0.105
Q09	3	0.870	0.034	1.175	0.330
잔차	80	19.750	0.763		
총합	104	25.876	1.000		
DM16	<i>df</i>	<i>SS</i>	<i>R²</i>	<i>F</i>	<i>p</i>
Q01	1	0.623	0.017	1.824	0.128
Q02	3	1.318	0.036	1.286	0.228
Q03	6	2.040	0.055	0.995	0.453
Q04	4	2.295	0.062	1.680	0.066
Q05	1	0.128	0.003	0.375	0.798
Q06	1	0.106	0.003	0.309	0.846
Q07	4	0.848	0.023	0.621	0.892
Q08	1	0.718	0.019	2.103	0.092
Q09	3	1.627	0.044	1.588	0.101
잔차	80	27.326	0.738		
총합	104	37.029	1.000		
DM19	<i>df</i>	<i>SS</i>	<i>R²</i>	<i>F</i>	<i>p</i>
Q01	1	0.234	0.011	1.279	0.263
Q02	3	0.605	0.029	1.103	0.354
Q03	6	1.641	0.078	1.497	0.151
Q04	4	1.138	0.054	1.557	0.158
Q05	1	0.314	0.015	1.720	0.182
Q06	1	0.180	0.009	0.985	0.357
Q07	4	1.574	0.075	2.153	0.057
Q08	1	0.377	0.018	2.061	0.135
Q09	3	0.253	0.012	0.461	0.779
잔차	80	14.618	0.698		
총합	104	20.933	1.000		
DM20	<i>df</i>	<i>SS</i>	<i>R²</i>	<i>F</i>	<i>p</i>
Q01	1	0.550	0.017	1.933	0.150
Q02	3	1.453	0.044	1.701	0.126
Q03	6	4.163	0.127	2.437	0.007**

Q04	4	1.413	0.043	1.241	0.277
Q05	1	0.032	0.001	0.111	0.894
Q06	1	0.057	0.002	0.202	0.821
Q07	4	1.357	0.041	1.192	0.288
Q08	1	0.667	0.020	2.342	0.095
Q09	3	0.348	0.011	0.408	0.892
잔차	80	22.779	0.694		
총합	104	32.819	1.000		
DM21	<i>df</i>	<i>SS</i>	<i>R</i> ²	<i>F</i>	<i>p</i>
Q01	1	0.132	0.008	0.952	0.314
Q02	3	0.362	0.023	0.869	0.500
Q03	6	1.163	0.074	1.397	0.177
Q04	4	0.648	0.041	1.168	0.332
Q05	1	0.003	0.000	0.021	0.977
Q06	1	0.000	0.000	0.002	0.998
Q07	4	1.858	0.119	3.348	0.017*
Q08	1	0.317	0.020	2.283	0.109
Q09	3	0.066	0.004	0.158	0.972
잔차	80	11.099	0.709		
총합	104	15.648	1.000		
DM22	<i>df</i>	<i>SS</i>	<i>R</i> ²	<i>F</i>	<i>p</i>
Q01	1	0.113	0.004	0.476	0.564
Q02	3	1.664	0.060	2.332	0.046*
Q03	6	2.903	0.105	2.034	0.034*
Q04	4	1.395	0.050	1.467	0.179
Q05	1	0.351	0.013	1.476	0.225
Q06	1	0.213	0.008	0.896	0.388
Q07	4	1.752	0.063	1.841	0.066
Q08	1	0.019	0.001	0.078	0.933
Q09	3	0.297	0.011	0.416	0.855
잔차	80	19.026	0.686		
총합	104	27.733	1.000		

DM: 비유사성/거리 행렬(dissimilarity/distance matrix)

p* < .05, *p* < .01

부록 3

사후 검정(Post-Hoc Pairwise PERMANOVA) 결과

DM20~Q03	비교	df	SS	F	R ²	p	조정된 p
1	[5] vs [4]	1	1.387	4.852	0.152	0.016*	0.328
2	[5] vs [3]	1	0.245	0.818	0.018	0.549	1.000
3	[5] vs [6]	1	1.187	3.971	0.102	0.032*	0.674
4	[5] vs [7]	1	0.030	0.107	0.005	1.000	1.000
5	[5] vs [2]	1	0.186	0.746	0.019	0.528	1.000
6	[5] vs [1]	1	0.194	0.675	0.027	0.540	1.000
7	[4] vs [3]	1	0.731	2.246	0.062	0.139	1.000
8	[4] vs [6]	1	0.114	0.338	0.014	0.753	1.000
9	[4] vs [7]	1	0.576	1.700	0.124	0.201	1.000
10	[4] vs [2]	1	1.733	6.618	0.191	0.004**	0.088
11	[4] vs [1]	1	0.433	1.252	0.088	0.413	1.000
12	[3] vs [6]	1	0.476	1.448	0.033	0.244	1.000
13	[3] vs [7]	1	0.068	0.207	0.007	0.835	1.000
14	[3] vs [2]	1	0.655	2.305	0.048	0.131	1.000
15	[3] vs [1]	1	0.123	0.372	0.012	0.840	1.000
16	[6] vs [7]	1	0.416	1.220	0.057	0.363	1.000
17	[6] vs [2]	1	1.790	6.394	0.151	0.004**	0.078
18	[6] vs [1]	1	0.364	1.054	0.048	0.425	1.000
19	[7] vs [2]	1	0.049	0.193	0.008	1.000	1.000
20	[7] vs [1]	1	0.039	0.110	0.012	1.000	1.000
21	[2] vs [1]	1	0.167	0.641	0.025	0.664	1.000

DM: 비유사성/거리 행렬(dissimilarity/distance matrix)

[1] 창의융합인재학부, [2] 사회복지학과, [3] 부동산학과, [4] 법무행정학과, [5] 심리치료학과, [6] 미래융합경영학과, [7] 멀티디자인학과

*p < .05, **p < .01

DM21~Q07	비교	df	SS	F	R ²	p	조정된 p
1	[1] vs [5]	1	0.829	6.284	0.063	0.040*	0.362
2	[1] vs [2]	1	0.091	0.679	0.007	0.697	1.000
3	[1] vs [3]	1	0.201	1.479	0.015	0.144	1.000
4	[1] vs [4]	1	0.829	6.284	0.063	0.043*	0.383
5	[5] vs [2]	1	0.595	3.571	0.417	0.286	1.000
6	[5] vs [3]	1	0.333	1.000	0.333	1.000	1.000

7	[5] vs [4]	1	0.000	NA	NaN	NA	NA
8	[2] vs [3]	1	0.056	0.259	0.036	1.000	1.000
9	[2] vs [4]	1	0.595	3.571	0.417	0.286	1.000
10	[3] vs [4]	1	0.333	1.000	0.333	1.000	1.000

DM: 비유사성/거리 행렬(dissimilarity/distance matrix)

[1] 없음, [2] 6개월 미만, [3] 6개월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3년 미만, [5] 3년 이상

* $p < .05$

DM22~Q02	비교	df	SS	F	R ²	p	조정된 p
1	2020 vs 2019	1	0.895	3.216	0.100	0.065	0.391
2	2020 vs 2021	1	0.320	1.162	0.028	0.378	1.000
3	2020 vs 2022	1	0.010	0.047	0.001	1.000	1.000
4	2019 vs 2021	1	0.305	0.970	0.021	0.429	1.000
5	2019 vs 2022	1	1.259	5.077	0.077	0.015*	0.087
6	2021 vs 2022	1	0.437	1.743	0.024	0.188	1.000

DM: 비유사성/거리 행렬(dissimilarity/distance matrix)

* $p < .05$

DM22~Q03	비교	df	SS	F	R ²	p	조정된 p
1	[5] vs [4]	1	0.745	2.828	0.095	0.084	1.000
2	[5] vs [3]	1	0.413	1.466	0.032	0.278	1.000
3	[5] vs [6]	1	0.203	0.758	0.021	0.478	1.000
4	[5] vs [7]	1	0.190	0.832	0.035	0.562	1.000
5	[5] vs [2]	1	0.120	0.599	0.015	0.446	1.000
6	[5] vs [1]	1	0.063	0.285	0.012	1.000	1.000
7	[4] vs [3]	1	0.528	1.648	0.046	0.229	1.000
8	[4] vs [6]	1	0.508	1.601	0.063	0.226	1.000
9	[4] vs [7]	1	0.319	1.104	0.084	0.439	1.000
10	[4] vs [2]	1	0.919	4.255	0.132	0.022*	0.458
11	[4] vs [1]	1	0.633	2.352	0.153	0.143	1.000
12	[3] vs [6]	1	0.018	0.059	0.001	1.000	1.000
13	[3] vs [7]	1	0.509	1.693	0.053	0.228	1.000
14	[3] vs [2]	1	1.001	3.968	0.079	0.035*	0.737
15	[3] vs [1]	1	0.460	1.573	0.048	0.261	1.000
16	[6] vs [7]	1	0.395	1.377	0.064	0.289	1.000
17	[6] vs [2]	1	0.599	2.591	0.067	0.097	1.000
18	[6] vs [1]	1	0.312	1.136	0.051	0.370	1.000

19	[7] vs [2]	1	0.088	0.507	0.021	0.734	1.000
20	[7] vs [1]	1	0.094	0.518	0.054	1.000	1.000
21	[2] vs [1]	1	0.008	0.047	0.002	1.000	1.000

DM: 비유사성/거리 행렬(dissimilarity/distance matrix)

[1] 창의융합인재학부, [2] 사회복지학과, [3] 부동산학과, [4] 법무행정학과, [5] 심리치료학과,
[6] 미래융합경영학과, [7] 멀티디자인학과

* $p < .05$